

10 오피니언

사설

첫 종합 감사, 신뢰 다지는 계기로

지난달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첫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를 받았다. 총 55건의 적발 사항 중 특히 이슈가 된 것은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신입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리 모집, 수의 계약 등이었다.

사립대학의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성 언론은 이른바 '사학 비리'에 대해 크게 보도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감사 결과가 나오고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률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3년마다 모든 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사립대의 40%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는 지금도 계속 나오는 중이다.

대학 본부는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에 대한 총장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양 캠퍼스 총학생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었다고는 하지만 작지 않은 징계 사안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그렇기에 더 많은 지적을 받은 학교와 우리를 비교하며 위안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대학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징계 사안들을 시정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종합 감사 결과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우리학교가 지적받은 사항이 단순히 우리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 전체의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모두가 다 하는 일이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매우 쉬우면서도 위험한 발상이다. 관

행이라는 말은 사람을 쉽게 적을 시키고 또 무뎠지게 만든다. 오랫동안 전해진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투명한 대학 운영을 원한다면 당연히 하다고 여겨지는 솔한 관행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는 동안 학내 구성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접하면 그 부당함과 불합리함에 크게 분노하지만 일상생활에 치여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모두 꾸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선 학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적발 사항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학교가 잘못된 내용, 잘못된 원인, 이에 대한 학교의 입장, 앞으로의 발전

방향, 꾸준히 변화해가는 모습 등을 장기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우리신문은 이번 호에서 55건의 지적 건수 중 중징계를 받은 사항, 규모가 큰 사항,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선별해 정리했다. 감사팀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 및 규정 개선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만큼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신문은 감사 이후 개선된 부분과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꾸준히 보도하려 한다.

종합 감사 결과와 함께 학교는 큰 숙제를 부여받았다. 학내 구성원의 믿음과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종합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경희대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세시봉

대중과 언론



헤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범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진 속 택배 주소를 보고 집을 찾아가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수개월 스토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잔인한 범행 수법에 놀랐고, 평범한 범인의 모습에 놀랐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놀랐다.

지난 10월 17일, 3년 넘게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짝사랑', '연모'와 같은 단어가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등장했다. 가해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의 안일한 표기가 스토킹 범죄를 미화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나왔다. 피해자에게 스토킹은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스토킹 범죄에 가해자의 시선으로 스토리텔링 한 것은 한 번의 일이 아니었다. 3년 전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7년 전 스토킹하던 선생님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짝사랑하던 여자'로 묘사됐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나라를 들쭉였지만 이번에는 어떤 언론사도 '짝사랑'과 같은 범인의 감정을 대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중이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다. 여전히 스토킹을 짝사랑이라 여기며 가해자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언론의 작은 변화지만 스토킹이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닌 '범죄'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 사건을 통해 언론과 대중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게 됐다. 흔히 언론이 대중을 선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이 언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대중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게 비판을 지속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우리 대학 종합 감사

이병동치 異病同治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교육부가 발표한 우리 대학의 감사 결과에는 55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경고로 그친 사안부터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건까지, 학사 및 회계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교가 곧바로 시정을 약속하고 소통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조치 계획 제출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부문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한의학에는 異病同治(이병동치)라는 말이 있다. 각기 다른 병에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다양해 보이는 병과 증상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한 경우 공통적인 원인만 제거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의 각 지적 사항에도 공통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며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의무와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와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규정과 법령은 숙지하기 까다롭고, 준수하는 데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제도의 취지와 기관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공통적인 원인과 해결 방향 또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징계는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성원들이 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듯이 말이다.

취재 중 구성원들이 대체로 보이는 반응은, 해결이 어려울 정도의 비위가 발견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55건의 지적 중에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실수라는 이름으로 해명하고, 병을 고칠 기회를 얻는 것은 첫 감사가 마지막이다. 대학의 의무를 상기하며 빠른 조치를 취하면 한 번에 사그라들 문제들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만평 대학의 목적과 의무를 다시 생각할 때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국대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